전주시, 왕의궁원 프로젝트 본격화

전문가 릴레이 포럼 결과 · 의회 지적사항 등 반영한 마스터플랜 수립

전주시가 후백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유치전에 돌입하고, 각종 사업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고도 지정에 속도를 내는 등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전주시가 후백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유치전에 돌입하고, 각종 사업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고도 지정에 속도를 내는 등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역사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시는 △구도심~한옥마을 지역을 '왕의 궁' △아중호수~승암산 지역을 '왕의 정원' △덕진공원~건지산 지역을 '왕의 숲'을 테마로 3개의 핵심사업과 9개의 연계사업, 2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릴레이 포럼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 △정체성 확립 △왕의궁원 명칭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 △왕도의 시대적 배경 정립 △광역 단위 연계 추진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구조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주시정연구원과 함께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용어 및 사업 등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와는 별개로 왕의궁원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후백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 사업으로 올해 2억 원의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돼 올해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30년까지 건립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시는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한 축을 이룰 △전주관광 케이블카 설치 △전주 드림랜드 현대화 등은 민간투자를 위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주부성 복원 정비 △간재선비문화수련원 등의 경우 소관 부처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에는 고도 지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도지정을 위한 전주 후백제 고도지정 학술대회 및 시민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치밀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주고도 지정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추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 공유

충남 서부장애인복지관장 등 관계자들, 전주 방문

전주시는 지난 7일 충청남도 서부장애인복지관장 등 관계자 8명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사례 학습을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주시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사)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장애인 자립전환사업단을 찾아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자립대상자의 동영상을 시청했다. 또, 자립 지원 현장인 장애인 자립주택을 찾아 사업 대상자와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주시를 비롯한 30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 시범사업의 경우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히며 사례 공유를 위한 타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위해 28호의 주택을 확보하고 현재 19명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진안 한 마을 노인회 전 회장 "수백만원 착복 관련 확인 위해 총무에게 서류 가져왔다 다시 돌려줘"

진안의 한 마을 노인회 전 회장 수백만원 기금 착복 의혹 기사와 관련이 있는 L모씨가 당일 오전 총무가 보관하고 있던 노인회 서류 일체를 가져갔다 오후 돌려줘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본보 6월 5일자 5면〉

지난 7일 진안읍 원단양마을 노인회에 따르면 수백만원의 착복 의혹을 받고 있는 L모씨가 지난 5일 오전 원단양마을 총무에게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며 서류 일체를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넘겨주었다는 것.

원단양마을 노인회 A모 회원은 "당사자가 4년 전 회장직에서 물러 날 때 넘겨줬던 서류를 언론에 착복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서류 일체를 가져간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B모 회원은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기에 서류를 보고 미리 경찰조사에 대비하거나, 알리바이 성립을 위해 총무가 서류를 안 줄 것 같으니까 경찰서 가져간다고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L모씨는 "지난 5일 자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경찰서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죄가 되는지, 확인하려고 총무에게 서류를 가져왔다가 지인들이 경찰서에 가야 소용없다고 해서 오후에 총무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분양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가 에코시티 더샵 4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계약체결일인 27일까지 분양 홍보관 주변에서 도 특별사법경찰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반을 편성해 특별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단속 내용은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행위 △무등록(떳다방) 이동식 중개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이다.

에코시티 더샵 4차는 견본주택 없이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중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6.13.~6.22.) 및 계약 체결일(6.24.~6.27.)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며 특히 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적용 주택으로서 전매제한기간 1년으로 그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고 파는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봉정 구청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가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전했다.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은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10건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주덕진소방서는 △폭행사고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운영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폭행 상황 대비 구급차 경고·신고 장치,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폭행피해 대응전담팀 설치·확대 등을 추진한다.

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며 "국민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7일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과 전주의 특화 도서관을 방문하는 전주 도서관 여행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별한 전주 도서관 여행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연계 특별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는 지난 7일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과 전주의 특화 도서관을 방문하는 전주 도서관 여행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지역서점 일원에서 전시 · 강연 · 공연 · 체험 · 북마켓 · 콘퍼런스 등 그림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도서관 여행자들은 한옥마을도서관에서 공간 해설과 더불어 '나를 찾는 여행'을 주제로 한 다양한 큐레이션을 즐겼다.

특히 한옥마을도서관에는 지난 제1회 ·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포스터와 대표 그림책들이 전시돼 있어 도서관 여행자들에게 그동안 진행된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대표 그림책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행자들은 이어 팔복예술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일환으로 '현실과 판타지, 그 사이'를 주제로 전시된 국내 · 외 대표 그림책 작가들의 원화전을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하고,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도 즐겼다.

시는 이번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과 연계한 전주 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7월 7일에도 독립출판 북페어인 '전주책쾌'와 연계한 도서관 여행 코스를 기획해 전주의 책축제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보다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 도서관 여행을 통해 풍성하게 준비한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함께 소개할 기회가 돼 기쁘다"면서 "전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서관 여행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